



가족 하기(doing)와 허물기(undoing)

— 냉전사적 사건으로서 혼혈인의 미국 이주와 초국적 가족 형성,
그리고 수행적 ‘가족 실천’ —* **

김 은 경

- | | |
|---------------------------|---------------------------------|
| I. 머리말 | IV. 재미 혼혈인의 이주 경험과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 |
| II. 선행 연구 검토 | V. 수행으로서 ‘가족 하기’와 ‘허물기’ |
| III. 냉전 인도주의와 혼혈인 이주의 정치성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전쟁 후 본격화된 국제입양은 아동의 “강제 이주”¹⁾라고 불릴 만큼 세계아동의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자, 노예무역이나 여성 인신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C2A02088553).

**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콜로라도주립대(볼더 캠퍼스) 임승연 선생님은 구술자 헤나와 베티의 면담을 진행해 주셨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미국의 인종 이슈는 구술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 인사드린다. 또한 구술자를 섭외하고 직접 찾아가는 여정에서 도움을 주신 이주 혼혈인 단체 ‘하파 네이션 원(HAPA Nation One)’의 티아 레고스키 회장님과 줄리아 김 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업무를 내지 못했을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생면부지의 면담자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오랜 세월 물어두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주시신 구술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1)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연구한 박순호는 국가가 주도한 대규모 국제입양을 “아동의 강제 이주”로 규정했다. S.H. Park, *Forced Child Migration: Korea-born Intercountry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1994;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저, 뿌리의 집 역, 『해의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24쪽에서 재인용.

때에 견줄 만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²⁾ 그 시작은 전쟁고아와 ‘미군 아기(GI baby)’로 불린 혼혈아동을 참혹한 전쟁터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했다. 전쟁과 인종차별의 최대 피해자인 혼혈아동을 구조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논리가 냉전 전략의 일환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혼혈아동은 ‘사회적 장애아’라고 분류될 만큼 ‘정상성’에서 벗어난 ‘손상된’ 존재로 타자화되었다.³⁾ 부계 혈통의 순수성을 상상하며 구성된 민족주의⁴⁾는 ‘혼혈을 수치로 여기는 게 민족의 자존심을 위해 다행’⁵⁾이라는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도록 만들었다. 혼혈아를 “6·25의 부산물”⁶⁾이라고 여겼던 한국 사회는 그들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는 것을 ‘전후처리’의 절차쯤으로 생각했다.

이 글에서는 혼혈인의 이주를 전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지 않고 냉전사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경험을 구술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로서 혼혈인은 단일한 소속이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당연시해온 범주를 횡단하는 존재이다.⁷⁾ 이 연구의 관심사는 단지 ‘방출된’ 혼혈인이 우리와 같은 핏줄이며 우리 공동체가 품어야 할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 다름의 삶이 어떻게 규범적인 ‘정상 가족’과 그에 기초한 민족국가라는 동일성의 세계에 구멍을 내는지를 탐색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재미 혼혈인의 삶의 경험을 가족사의 맥락에서 탐색하고 그 행위성을 가시화하고자 한다.⁸⁾ 가족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2)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저, 위의 책, 39쪽.

3) 『경향신문』, 1961. 4. 9; 김은경, 『학생문화사: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서해문집, 2018, 81쪽.

4) 진후 젠더화된 민족주의의 형성 과정을 비판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5) 「여적」, 『경향신문』, 1964. 6. 18.

6) 위의 신문 기사.

7) 디아스포라 담론의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린더 칼라 등의 연구서를 참고, 유럽 중심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임경규의 글을 참고. 비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닉 저,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3, 21-58쪽; 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어영문학 21』 25-4, 2012.

8) 저항적 주체나 행위성에 주목하는 연구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는 규범적 질서 밖의

째는 그들의 경험 세계에서 가족이 중요한 생애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재미 혼혈인에게 이주는 가족의 이산으로 체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느낀 결핍감과 트라우마는 헤어진 가족 찾거나 대안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능동적인 극복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삶의 주요 국면마다 드러나는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실천 행위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는 혼혈인이 디아스포라적 존재로 국외로 ‘내몰린’ 데에는 한국의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젠더화된 인종주의뿐만 아니라,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세대 혼혈인은 한국인 어머니가 홀로 양육 부담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가정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대규모 아동 이주를 낳은 원인이었다. 따라서 혼혈인의 삶의 경험을 통해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을 논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는 혼혈인의 가족 이산과 이주, 그리고 이주지에서의 초국적 가족 형성이 냉전사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수많은 아시아 여성과 아동의 이주로 형성된 ‘글로벌 가족’은 사실상 냉전의 필요요소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에서 전후 통합과 다문화주의의 상징이었으며, 냉전의 문화적 전시물이었다.⁹⁾ 그런 점에서 혼혈인의 이주와 새로운 가족 경험은 냉전이 일상사(일상의 정치성)를 고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데이비드 모건(D. H.J. Morgan)의 ‘가족 실천(family practices)’ 개념은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공한다.¹⁰⁾ 모건은 개인이

주체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서 주체의 행위성은 그것이 구성되는 조건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위성을 논할 때 그것이 발현되는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의 역설에 대해서는 버틀러의 설명이 좋은 참고가 된다. “내가 어떤 행위 주체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나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는 사회 세계에 의해 구성된다는 사실로 인해 열려 있다. 페리독스로 인해 찢겼다고 해서 나의 행위 주체성이 아예 불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런 페리독스만이 행위 주체성이 가능해지는 조건이라는 뜻일 뿐이다.”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13쪽.

⁹⁾ S. Woo, *Framed by War: Korean Children and Women at the Crossroads of US Empi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2019, p. 23.

¹⁰⁾ D. H.J. Morgan,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6; “Risk and Family Practices: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E. B. Silva, C. Smart, eds., *The New Family?*, SAGE Publications, 1999.

가족구조에 수동적으로 간하지 않고 능동적인 수행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가족 실천’으로 명명했다. 그는 가족이 여전히 개인들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관계적 실체라고 보아 해체적 입장과는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가족이 존재(being)가 아니라 행위(doing)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것이 좀 더 열린 네트워크로 인식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가족은 명사가 아닌 형용사 또는 동사이며, 인간 상호작용과 능동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는 문화적 개념이다.

모건이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¹¹⁾ 최근 쿼어 친족 연구자들은 가족 연구의 향로를 급진적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체적 가족 논의를 이끌며 가족을 쿼어링(queering) 하는 연구자들은 오이디푸스 서사에서 벗어나 인간 생식의 탈자연화를 위한 도구로 친족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것을 촉구한다. 친족은 혈연이 아닌 보살핌을 윤리적으로 실행하는 정서 공동체로서, 비본질적인 가족을 상상하는 데에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친족 관계는 중, 성별, 인종,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구에 존재하는 관계적 집합체이다.¹²⁾ 이는 섹슈얼리티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쿼어 연구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분석 시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구술자들의 생애 경험을 모건의 ‘가족 실천’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가족 찾거나 가족 만들기과 같은 행위를 ‘가족 하기(doing family)’라는 수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들의 ‘뿌리 찾기’가 단지 ‘상상적 원본’으로서의 ‘가계도-가족 나무(family tree)’를 복원하거나 완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가족/친족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또 그런 수행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가 결국 한국의 규범적인 가족 모델을 강력하게 문제 삼는, ‘가족 허물기(undoing family)’¹³⁾임을 밝히고자 한다. ‘하기’와 ‘허물기’에 대한 탐

11) 데이비드 모건의 가족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김혜경의 연구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김혜경, 「가족구조에서 가족실행으로: ‘가족실천’과 ‘가족시연’ 개념을 통한 가족연구의 대안 모색」, 『한국사회학』 53-3, 2019.

12) ROBINOU, *Queer Communal Kinship Now!*, Punctum Books, 2023, pp. 129-131.

13) 이 글에서 ‘가족 허물기(undoing family)’는 주디스 버틀러가 규범적인 관념을 허문다는 의미로 사용한 “젠더 허물기(undoing gender)”에 착안했음을 밝힌다.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구는 생물학적 동질성이나 단일한 혈연적 계보, 인종이나 국적의 단일성을 전제로 상상해온 ‘단단한’ 가족이 아니라, 개개인의 친밀한 관계적 실천을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허물어지는 ‘유연한’ 가족을 사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사용한 구술 자료는 2023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미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 등에서 구술자들을 직접 면담해 수집한 것이다.¹⁴⁾ 구술자의 자택이나 면담자가 머문 호텔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며, 한국어가 능숙한 콜린과 헤나와는 한국말을 병행했고 그 외에는 모두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술 생애사의 시각에서 생애 전반의 이야기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되, 이주 혼혈인으로서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두었다. 구술자의 주요 신상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구술자 인적 사항

이름 (가명)	성 별	출생	인종	이주 연도	이주 동기	직업	양부모 직업(인종)	면담 언어
로이	남	1952 (추정)	흑인계	1958	입양	작곡가, 트럼펫 연주자, 버스 기사	양부: 건물 임대업 양모: 교사 (백인)	영어
헤나	여	1952	백인계	1973	결혼	자영업		한국어
에이미	여	1952	흑인계	1956	입양	버스 기사, 햄버거 가게 점원	양부: 약사 (흑인)	영어
제니퍼	여	1953	흑인계	1956	입양	보험회사 직원, 주식 중개인	양부: 시청 공무원 (흑인)	영어
베티	여	1961	백인계	1966	입양	군인, 호텔 관리인, 운송회사 직원	양부: 군인 (백인)	영어(면담 진행: 입승연)

14) 일부 구술자는 서면으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름 (가명)	성 별	출생	인종	이주 연도	이주 동기	직업	양부모 직업(인종)	면담 언어
캐서린	여	1961	백인계	1967	입양	자영업	양부: 군인 (양부: 백인, 양모: 한국인)	영어(면담 진행: 임승연)
콜린	여	1962	흑인계	1978	결혼	의류 도소매업, 미용사		한국어, 영어(이복언니 공동 면담)

구술자들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초반에 출생했다.¹⁵⁾ 미국 이주 동기는 입양과 결혼이며, 이주 시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있다. 구술자가 경험한 세계는 그들의 인종과 젠더, 이주 동기와 시기, 양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양육 태도 등에 따라 달랐다. 3~5세에 입양되어 한국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흑인계 에이미와 제니퍼는 비교적 양부모나 친척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양부모가 속한 흑인 커뮤니티와 상대적으로 유대감이 강했다. 7~8세 무렵 백인 부모에 입양된 흑인계 로이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 흑인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해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에 때로 자신을 ‘미국인’ 또는 ‘흑인’과 분리해 설명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중남미 음악을 하는 예술가로서 문화적 정체성이 더 강했다. 5~6세 무렵 입양된 백인계 베티와 캐서린은 어린 시절 한국에서 겪은 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기억의 퍼즐을 온전히 짜맞추기 어려워 힘겨워했다. 특히 캐서린은 양모를 친모 또는 이모로 의심하며 살았으며, 자신과 인종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양모에게 학대당한 경험까지 더해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헤나와 콜린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으며,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입양 이주민들과 혼혈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15) 입양 구술자의 출생 정보는 입양 서류에 기록된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입양 서류를 작성할 때 아동의 나이를 낮추는 일이 많았다. 이는 당시 10세 미만이라는 입양 제한 나이를 피하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를 원하는 입양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였다.

II. 선행 연구 검토

초기 혼혈인 연구는 이들의 인종적·유전적 특징을 밝히는 의학 연구와 사회복지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¹⁶⁾ 그 뒤 입양과정의 문제점이나 입양 이후 현지 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가 등장했다.¹⁷⁾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한국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연구가 증가했다. 그것은 혼혈인 문제의 등장 배경과 정책, 실태를 분석한 연구,¹⁸⁾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낙인 연구,¹⁹⁾ 가족제도와 성원권 및 모성권에 대한 젠더 분석,²⁰⁾ 혼혈인의 몸에 대한 지식 생산을 분석한 연구,²¹⁾ 소설이나 영화적 재현 연구²²⁾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
- 16)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2-1/2-2, 1961; 임부웅, 「입양시기를 놓친 혼혈아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1966; 김영인·정옥경,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혼혈아의 실태연구」, 『사회사업』 4, 1969.
- 17) 초기 국내의 연구의 경향과 문제점은 다음을 참조.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저, 앞의 책, 20-23쪽.
- 18)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 사회』, 후마니타스, 2008; 김아람,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과 해외 입양」,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 함께, 2014.
- 19) 박경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8, 1999; 설동훈,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52, 2007; 이철우, 「국적과 종족성에 의한 집단적 자아와 타자의 구별」, 『사회이론』 23, 2003; 김은경, 앞의 책, 75-87쪽; 엄운옥,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를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 봄, 2019; 김아람, 「배울 권리와 의무교육의 교차, 1950~60년대 전반 ‘혼혈’아동 교육」, 『역사비평』 133, 2020.
- 20)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연구』, 15-1, 2015; 박정미, 「혈통에서 문화로?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 『한국사회학』 54-4, 2020; 신필식,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21) 민병웅, 「적합한 몸의 선별과 집단 사이의 위계화: 1950~60년대 한미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혼혈아의 몸에 대한 지식 생산과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35, 2022.
- 22) 변화영, 「혼혈인의 디아스포라적 기억의 재구성 -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명 형의 기억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논총』 65, 2013; 임선애, 「새로운 주체의 탄생, 혼혈인에서 노마드적 주체로 - <리투아니아 여인>의 경우」, 『한국사상과 문화』 79; 김경강, 「보이지 않는 혼혈인 - <내가 낳은 검둥이>로 본 대한민국 ‘검은 피부’의 정치학」,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 함께, 2014.

연구들은 한국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젠더차별이 혼혈인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내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일국적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냉전 정치를 혼혈인 문제의 발생 배경으로 전제할 뿐, 구체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혼혈) 입양인을 냉전사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는 크리스티나 클레인(C. Klein), 수진 페이트(S. Pate), 수지 우(S. Woo), 아리사 오(A. H. Oh), 유리 둘란(Y. Doolan) 등 미국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냉전기 미국의 미디어장을 분석한 크리스티나 클레인은 입양아동의 재현을 통해 미국이 ‘자유 진영’을 보호하는 수호자라는 이데올로기가 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인종 다양성을 내세워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주조하고 글로벌 확장을 도모했는데, 그 과정에서 입양을 통해 이루어진 혼혈, 다인종, 다국적 가족이 미국과 아시아의 국제적 유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²³⁾

수진 페이트는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퀴어 비평적 렌즈를 통해 전후 입양의 지배 서사였던 인도주의를 ‘군사화된 인도주의’로 명명하고 이를 비판했다. 냉전 오리엔탈리즘이 비혈연 입양가족 형성을 가능하게 했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만, 동화적 관행과 귀화의 모순/실패는 미국 신식민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해리 홀트의 입양 사업 이전부터 미군이 고아 문제 해결책으로 초국적 입양정책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²⁴⁾

수지 우는 미국의 냉전 질서 구축과 국가통합의 차원에서 한국 여성과 아동의 이주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주목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미디어가 미국은 한국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아버지로, 한국은 순진하고 취약한 아이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미군 병사들이 아시아를 위해 싸우고 죽었는지 이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²⁵⁾ 아리사 오 역시 한

23) C. Klein,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3.

24) S. Pate,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2014.

국의 국제 입양이 한국전쟁과 한미관계라는 특수한 역학 관계에서 탄생했다고 보고, 그것이 수익성 좋고 문화적 효과가 뛰어난 관행으로 변모하게 된 역사를 비판적으로 탐색했다.²⁶⁾

미국에서 아메라시안(Amerasian)의 범주가 구성된 역사를 냉전 지정학의 맥락에서 분석한 유리 돌란의 연구는 눈에 띄는 성과이다. 그는 아메라시안이 인종적인 분류를 위한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출’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정치적 의미를 띤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아메라시안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패배를 상징적·정신적 승리로 보상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²⁷⁾ 또 다른 연구에서는 국제 입양의 기원으로 기지촌과 한국 입양인에게 덧씌워진 과잉 성애화된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²⁸⁾

이들과 달리, 18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미국 입양의 역사를 추적한 레이첼 윈슬로우(R. R. Winslow)는 다차원적 패러다임을 통해 냉전기 미국의 초국적 입양정책을 설명했다. 초기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미국 입양 부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비주의, 사회복지사의 인식을 반영한 아동복지론,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심을 대변하는 인도주의,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한 입양인 송출국의 발전주의 등이 결합해 초국적 입양이 변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⁹⁾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입양인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한 연구 성과는 엘리나 김(E. J. Kim)의 저서이다. 연구에서는 입양인 담론과 사회적 실천을 수행적인 ‘세계 만들기’의 한 형태로 보고 그를 “대항 공중(counterpublic)”으로 프레임했다.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입양인 공동체에 주목하여, 그것을 친족 관계를 협상하고 수행하는 다양한 대항 공중적 담론과 실천으로 보았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입양인들이 실제와 가상의 공간에서

25) S. Woo, *op. cit.*

26) 아리사 H. 오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뿌리의 집, 2019.

27) Y. Doolan, “The Cold War Construction of the Amerasian, 1950–1982”, *Diplomatic History*, Vol.46, No.4, 2022, p.799.

28) Y. Doolan, “The Camptown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Hypersexualization of Korean Children”,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Vol.24, No.3, 2021.

29) R. R. Winslow, *The Best Possible Immigrants: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American Family*,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2017.

이야기를 공유하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친족 관계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정체성과 친밀한 관계를 생산했다고 본 점이다. 엘리나 김은 이를 ‘입양인 친족(adoptee kinship)’으로 개념화하고, “생물학적으로 뿌리내린 확실성보다 급진적인 우연성에 기초한 연대의 한 형태”로 정의했다.³⁰⁾ 이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맞닿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된 연구는 이주 혼혈인의 역사를 냉전 정치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 그들의 초국적 위치에 주목함으로써 단일한 기원으로 문제를 환원하는 대신,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혼혈인의 경험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국제입양 사례의 하나로 접근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글에서는 보다 더 재미 혼혈인의 경험을 가시화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Ⅲ. 냉전 인도주의와 혼혈인 이주의 정치성

1953년에 최초로 4명의 한국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사실 그 이전에도 비공식적인 입양이 이루어졌다.³¹⁾ 해외 입양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인이나 외교관, 선교사가 고아를 입양하는 일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³²⁾ 복무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의 입양 문의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하지만 초기에는 초국적 입양(특히, ‘유색인’ 아동의 입양)에 대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군 당국은 정식으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기 전까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었다. 주마다 입양법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종교가 다른 아동의 입양을 금지하는 주가 많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³³⁾

30) E. J. Kim,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London, Duke Univ. Press, 2010, p. 13.

31)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저, 앞의 책, 80-82쪽.

32) 「행운의 고아 인선」, 『조선일보』, 1951. 11. 17; 「아들은 자유 위해 바치고, 한국 고아 양자한 美人 夫婦의 佳話」, 『조선일보』 1952. 7. 18; 「고아를 양자로 맞췄다고」, 『조선일보』, 1952. 7. 22.

그러나 수진 페이트의 주장처럼, 미군이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추진한 보육원 설립과 지원 활동이 대규모 국제 입양의 토양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한국전쟁 이전에 100개 미만이었던 보육원은 1954년 무렵에는 4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미군은 한국민사원조사서령부(KCAC)와 미군대한원조(AFAK)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와 인도주의 사업을 연계했다.³⁴⁾ 그들은 군사 작전의 차원에서 질병과 기아 문제를 예방하고 보육원에 식량과 의복 등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된 서구의 아동복지 제도와 한국의 대미 종속 관계는 한국 정부가 전후 고아 문제 해결에서 미국에 깊이 의존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미군은 한국 보육원 설립과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고아를 보살피는 자비로운 조력자의 이미지를 만들었다.³⁶⁾ 미군이 표방한 인도주의는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⁷⁾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한국 아동의 참상을 접하고 기부에 동참하거나 아동을 ‘구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미국 언론은 초토화된 한반도의 모습을 고아의 비극적 이미지와 함께 전했고, 기독교 자선단체들이 그런 기사와 영상을 실어 나르며 일반시민의 관심을 촉구했다.³⁸⁾ 약 2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

33) “Adoption of Korean Orphans,” 1951. 8. 6., RG 338, Eighth U.S. Army, 1944-56,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Box 491.(NARA)

34) 인도주의 구호단체의 냉전적 성격을 분석한 글로 한봉석의 연구를 참조. 한봉석, 「인도주의 구호의 ‘냉전적 기원’ -1950년대 주한케아(C.A.R.E.)의 우유급식사업과 ‘푸드 크루세이드’(Food Crusade)」, 『사이(SAI)』 28, 2020; 「구호문자에 담긴 냉전: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통일과 평화』 12(1), 2022. AFAK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을 참조. 이소라, 「1950년대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 Assistance to Korea, AFAK)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22.

35) S. Pate, *op. cit.*, pp. 29-32.

36) S. Pate, *ibid.*, p. 22.

37) S. Pate, *ibid.*, p. 34.

38)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리 홀트 역시 이런 기회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의 소식을 접했다. 미국 오레곤 주의 농부였던 홀트는 1954년 12월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한국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홀트는 고아와 부상자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 특히 사회의 차별 속에 방치된 혼혈아의 모습에 가슴 아파했다고 한다. 영화 상영 후 후원자 모집을 위한 강연이 이어졌는데 홀트가 이때 후원자로 참여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홀트 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 홀트아동복지회, 2006, 112-113쪽.

유한 <라이프(Life)>를 비롯해 <콜리어스(Colier's)>, <룩(Look)>과 같은 대중잡지들은 앞다투어 남루하고 뼈쩍 마른 한국 아동의 모습을 전경화했다.³⁹⁾ 한국은 그 자체로 “고아의 땅”으로 재현되었다.⁴⁰⁾

특히, ‘미군 아기(GI baby)’ 또는 ‘전쟁 아기(war baby)’ 불렀던 혼혈아동은 ‘구조 1순위’로 인식되었다.⁴¹⁾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해 보육원에서 혼혈아동이 돌에 맞아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더라는 이야기가 기사화되었고, 보육원의 보조간호사가 혼혈아동에게 줄 음식을 아껴 한국 고아들에게 준다는 말이 떠돌았다.⁴²⁾ 이런 언론 보도로, 일상적인 폭력과 살해의 위협에 놓인 한국은 혼혈아동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졌다.

‘구조’한 혼혈아동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이미지는 혼혈아가 “미국이 한국을 침략하고 있는 증거”⁴³⁾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정치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법이기도 했다. 이것은 한미관계를 무력과 폭력이 아닌 보살핌과 친족의 틀에서 구성하는 그럴싸한 냉전 각본이었으며 강력한 정치적 은유였다.⁴⁴⁾

한편, 한국 정부는 1952년 처음으로 혼혈아동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외 입양정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⁴⁵⁾ 본격적인 논의는 종전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1월 15일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혼혈 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토록 조치하여라”⁴⁶⁾고 지시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대통령 유시를 통해 “색다른 아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면 그 아해 평생에 대체 어렵게 되므로

39) 아리사 H. 오 저, 앞의 책, 45-46쪽.

40) “Orphans in Korea”, *North Pacific Union Gleaner*, 23 Feb. 1953, 5., 아리사 H. 오 저, 위의 책, 46쪽에서 재인용.

41) “From Richard L. Neuberger to Under Secretary”, 1956. 8. 31., RG 59, Subject and Country Files, 1950-1962, Entry A1 3069, Korea, General, 1947-1960(국사편찬위원회 사료참조코드: AUS002_81_00C0008)

42) Ann Norman, “Babies GIs Left Behind Are Tragic Aftermath of Wars: War Baby Tragedy”, *Los Angeles Times*, Oct. 23, 1957; “Brown Babies Under Hardship In Orient”, *Philadelphia Tribune*, Feb. 1, 1955, as cited in Y. Doolan, op. cit., 2022, p. 788.

43) 「괴뢰의 전술 또 하나 탄로, 혼혈아 자료를 수집」, 『조선일보』, 1956. 9. 18.

44) S. Woo, *op. cit.*, pp. 12-20.

45) 김아람, 앞의 글, 2014, 102-103쪽.

46)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제3회)」, 1954. 1. 16.(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5171), 351쪽.

타국에서 수양해서 기르게 하자는 것”이라며 해외 입양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실제 입양이 성사되기까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 편리한 입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⁴⁷⁾ 이어 사회부장관은 1954년 7월, 신문 기자단과 만나 “장차 전 혼혈아를 미국에 이주하는 데 관하여 관계 한 미 요로와 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15명의 혼혈아가 미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⁴⁸⁾ 이 해에 정부는 ‘고아입양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⁴⁹⁾ 끝내 3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⁵⁰⁾

고아입양특례법은 제정되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부는 여러 행정 조치를 통해 혼혈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일에 착수했다.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혼혈아동의 실태나 입양 관련 문제에 대해 이승만은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는 것이 가할 것”⁵¹⁾이라거나, “많이 보내도록 하라”⁵²⁾는 등의 지시를 통해 초지일관 국제입양 방침을 취했다. 대통령의 ‘유시’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었다. 1953년 미국의 ‘난민구호법(RRA: Refugee Relief Act)’은 만 10세 미만의 난민 고아의 입양을 위해 최대 4천 명의 특별 비할당(nonquota) 비자를 배정했고 대리 입양을 인정해 입양 기관이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는데,⁵³⁾ 한국 정부도 이에 부응해 대리 입양정책을 추진했다.⁵⁴⁾ 혼혈아동의 국제입양 추진은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정책적으로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배경에서 혼혈아동의 해외 입양정책이 시작되었고, 한국아동양호회,

47) 국무총리 비서실, 「고아원 등에 관한 대통령 분부 전달의 건」, 1954. 5. 1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35191), 339쪽.

48) 「혼혈아 미국 이주」, 『부산일보』, 1954. 7. 12.

49) 김아람, 앞의 글, 2014, 103쪽.

50) 「상정 중의 백 일개 법안을 폐기」, 『동아일보』, 1957. 5. 2.

51)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국무회의록”, 「국무회의록(제94회)」, 1956. 1. 5.(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5176), 1349쪽.

52) 1957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직접 지시한 발언은 “많이 보내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이는 추후 국무원사무국장이 각 부 장관과 부처에 보낸 ‘국무회의록 송부의 건’에 “많이”를 삭제한 채 “많아 보내도록 하라”로 기록되었다.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국무회의록(제6회)」, 1957. 1. 18.(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517798), 84쪽, 98쪽.

53) Refugee Relief Act of 1953(PL.203, 66 Stat. 163, August 7, 1953).

54) 보건사회부, 「혼혈아동 해외 양자를 위한 대리양자 촉진의 건」, 「국무회의부의안」, 1956. 3. 2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205), 160-170쪽.

홀트해외양자회, 천주교구제회, 기독교아동복지회 등 민간단체와 미국 원조 기관을 통해 입양이 추진되었다.⁵⁵⁾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1955년 52명을 시작으로 1975년까지 총 5,546명의 혼혈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료마다 통계가 달라 정확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통계가 다르기도 해서, 한 연구자는 동일 기간의 해외 입양 혼혈아동이 최소 6,139명에서 최대 7,398명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다.⁵⁶⁾ 이 역시 1955년 공식 조사 이전의 기록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 대략적인 규모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최초로 입양을 추진한 미국 민간인은 서울 위생병원의 수간호사 아이린 룩슨(Irene Robson)이었다고 한다. 1953년 7월 룩슨은 자신이 돌보던 백인계 혼혈 페트리샤 리(Patricia Lee)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⁵⁷⁾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아시아권 이민자의 비자 제한을 폐지했던 1952년 이민국적법(McCarran-Walter Act) 제정 이후에는 일부 혼혈아동의 입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혼혈아동의 국제입양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외형상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표면적으로는 입양을 희망하는 외국 양부모와 종교단체의 요구에 한미 정부가 돕는 방식으로 드러났다.⁵⁸⁾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인도주의 활동’이라는 선전은 여러모로 ‘유용

55) 「전국의 혼혈아 실태」, 『조선일보』, 1962. 9. 7. 해외 입양을 추진한 기관의 성격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기관의 이름만 언급하기로 한다.

56) 박경태, 앞의 책, 208쪽.

57) “First Korean War Baby Brought Here by Nurse”, *Los Angeles Times*, 21 Dec. 1953; 아리사 H. 오 저, 앞의 책, 92-93쪽에서 재인용. 1953년 7월 인천에 버려진 혼혈아동 조지 에스콧의 사연과 입양 전후 사진은 ‘한국전쟁과 아동 기념관(Korean War and Children’s Memorial)’의 웹 사이트 참조. <http://koreanchildren.org/docs/navysbaby.htm> (검색일: 2023. 11. 15.)

58) 수진 페이트와 달리, 레이첼 윈슬로우의 초기 한국 아동 입양에서 홀트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자선가들의 영향이 컸다고 보았다. 1950년대까지 미국은 국제 입양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정책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고, 각기 서로 다른 주의 법이 연방 입양법과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오히려 국가가 민간단체의 인도주의 활동에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 틈새에서 인도주의 패러다임은 입양을 원하는 고객 주도적인 소비자 패러다임과 달리, 사랑과 구조라는 감정적인 언어를 통해 차별화되었다고 했다. R. R. Winslow, *op. cit.*, pp. 70-72.

한' 면이 있었다. 입양이 난민 처지의 아동을 일시적으로 구호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업으로 확대되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에 대응하는 수사가 '민간 주도의 인도주의 활동'이었던 것이다. 국제 입양은 "미국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먹고 한국인들이 혼혈아를 팔아먹는다"⁵⁹⁾는 대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1959년 국제여성민주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은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에 서한을 보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다. 북측 조선민주여성동맹의 주장을 인용해 해리 홀트가 998명을 "미국 오레곤 주에 아동 노동자(child labourers in Oregon, U.S.A.)"로 처분했으며, 55,000명 이상의 고아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⁶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적십자사는 고아 입양이 해리 홀트와 같은 자선가의 사적인 구호 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부인했다.⁶¹⁾ 이처럼 '민간 주도의 인도주의 구호'라는 이미지는 비정치적인 외피를 띠며 혼혈아 입양의 정치적 의도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

IV. 재미 혼혈인의 이주 경험과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

1. 가족 이산과 이주 경험: "익숙한 언어와 문화, 친밀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건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이지"

구술자들이 가족과 헤어져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입양과 결혼으로 나뉜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사람은 로이, 에이미, 제니퍼, 베티, 캐서린이다. 1956년에 미국에 도착한 제니퍼와 에이미는 기아로 발견되어 보육원을 거쳐 입양되었고, 로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보육원에 맡겨져 홀트양자회를 통해 1958년에 입양되었다. 캐서린은 한국에서 외할아

59) 「전국의 혼혈아 실태」, 『조선일보』, 1962. 9. 7.

60)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의 고아 문제에 대한 여성 단체의 입장(Question d'emigration de Coréens vers les Etats-Unis et l'Amerique latine)」, 195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관리번호: BTA0003141).

61)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의 고아와 이민자」, 1959(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관리번호: BTA0003141).

버지가 혼자 기르다가 친모 또는 이모로 추정되는 국제결혼여성에 의해 입양되어 1967년 미국에 도착했다. 먼저, 이주 경험에 대한 구술자의 경험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제니퍼는 기억조차 나지 않은 어린 시절에 가족과 헤어져 기아로 발견되었다.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제니퍼는 1956년에 입양되어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입양 사실은 추후 양부모에게 전해 들었으며, 2006년 DNA 검사를 통해 친모를 찾은 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 친모는 3세 무렵까지 제니퍼를 키운 뒤 다른 미군과 결혼해 육 남매를 키우며 미국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면담자: 입양 서류가 있으세요?) 제가 홀트라는 단체를 통해서 입양된 것 외에 그들[양부모]이 받은 것은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미국인 군인이라는 것, 그거예요. 저는 세 살이었고 고아원에 3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이○○는 나의 한국 출생 시 이름이고요, 현재는 제가 엄마의 이름을 알지만, 그 기록에는 없었어요. 거기에는 그저 ‘미상(unknown)’이라고만 돼 있었어요. 나의 할머니가 고아원에 데리고 왔다고 들었어요. <제니퍼>

벤티는 부모가 미8군 사령부로부터 결혼을 승인받지 못해 헤어지는 바람에 조부모가 입양을 보낸 경우다. 그녀는 엄마가 미군 아버지와 동거하던 중에 태어났다. 어머니의 임신 후 아버지가 미군 당국에 결혼허가신청을 했으나 거부되고 감옥에 간혀 소식이 끊겼다. 이에 버림받았다고 여긴 엄마와 조부모가 그녀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

저는 동두천 보산리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미군이었어요. 작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녀는 아내처럼 집안일과 세탁, 요리 등을 했고, 그는 재정적으로 엄마를 돌보았어요. 엄마는 아빠를 “여보”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그에게 말했고, 그는 그녀와 결혼하려고 군 사령부에 갔는데 거부당하고 수감됐어요.⁶²⁾ 엄마는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버림받았다고 생각했

62) 1961년생인 벤티가 태어날 무렵에는 이미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았던 시기이다. 결혼 허가 요청은 그 자체로 범법 행위가 아니라서, 구술만으로는 그녀의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어요 [나중에] 그가 나와서 엄마를 찾았지만 허사였어요.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장소 근처에 조부모가 살 것이라고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그들은 제 어머니가 애기를 낳다가 죽었고 나도 죽었다고 했어요. (...) 아버지는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 소식을 듣지 못했죠.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게 저에 대해 얘기했지만, 제 입양 소식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베티>

앞의 사례들과 달리, 로이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간 뒤 입양되었다. 7~8세까지 한국에 살았던 로이는 어린 시절 일을 생생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그는 동두천의 작은 단칸방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통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룰 것이라 짐작되는 동생을 임신한 상태였고, 자신은 주로 거리에서 하루를 보냈다. 밤에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심취했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폐뚜기를 잡아 먹었다. 어디를 가나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눈초리를 받았다. 그는 엄마가 동생을 낳은 뒤에 집 근처 보육원에 맡겨졌는데, 그곳에서 학대가 너무 심해 야간에 도망쳤다. 엄마는 좀 더 ‘안전한’ 두 번째 보육원을 찾았다. 로이는 다시 엄마 손에 이끌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논밭뿐인 한적한 길을 걸어 입양 전 임시보호소에 도착했다.⁶³⁾

엄마가 저를 두 번째 고아원에 데려갔을 때 가장 감정적으로 격했어요. 제가 문 쪽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으로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내려놓고는 뺨을 때렸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가 날 떠나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엄마가 날 버렸을까. 잊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로이>

제가 입양 사무실에 온 날이 11월 22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은, 제 본명은 로이예요. R, O, Y. 하지만 그들은 저를 더 미국인으

63) 로이는 그곳에서 홀트를 만났다고 한다. 그의 입양 시점이 1958년인 것으로 보아 홀트가 새로 마련한 녹변동의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홀트가 설립한 홀트해외양자회는 1956년 효창공원 근처 그리스도선교회 터에 입양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마련했다. 그러다가 입양 대기 아동 수가 급증하자 1958년 7월에 서울 교외 녹변리에 3천여 평의 땅을 매입해 보육원을 지었다. 그 이듬해에는 30~40명의 아동 수용이 가능한 입원실을 갖춘 병동을 부속건물로 지었다.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 홀트아동복지회, 2006, 152-175쪽.

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출생 증명서에 ‘Roey’라고 적고 E를 붙였어요. (...) 다음날 11월 23일에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그때 일곱, 여덟 살 정도였는데, 저는 그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로이>

넷째, 캐서린은 친엄마(또는 이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입양한 드문 경우다. 캐서린은 한국에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만 6세 무렵에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양부모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갔다. 그녀를 입양한 양모는 캐서린의 한국 호적에 호주(외할아버지)의 딸로 기재되어 있다. 한국에서 유명 사립대를 졸업했고 영어에 능통한 양모는 미국에서 미군을 만나 결혼했고, 그 남편의 동의를 얻어 캐서린을 입양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의 출생 내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함구했다.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아주 작은 한국 학교를 다녔다가 미국으로 보내졌어요. (...) [친] 엄마는 한국인이고, 내 양엄마도 한국인입니다. 양엄마는 내 친모일지도 몰라요, 추측에 불과하지만, [양] 아버지는 내 친부가 아니에요. DNA 테스트로 그가 친부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서 알게 되었죠. <캐서린>

제가 12살쯤 [양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입양 서류를 찾아냈거든요. 그녀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요. (...) 저는 어떤 입양 기관에 의해 입양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아원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입양아로서는 충분하지 않죠. 네, 그건 어쨌든 좋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죠. 익숙한 언어와 문화, 친밀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는 건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할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 마지막 장면은 공항에서 ‘굿 바이’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어요. <캐서린>

다섯째, 콜린과 헤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10대까지 지내다가 결혼 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콜린은 부모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퇴직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와 5년간 함께 살았다. 어머니는 미국에 가는 대신 한국에 남는 선택을 했고, 이에

따라 콜린도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콜린의 어머니는 입양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딸이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가길 바랐다. 결국 콜린은 만 15세에 미국인 변호사와 결혼해서 이주했다. 이와 달리, 헤나는 어머니가 기지촌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지원해줘서 어렵지 않게 지냈지만, 당시 혼혈인 사이에서 미국 입양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여서 자신도 그것을 바랐다. 흑인계라는 이유로 더 차별을 겪은 두 살 아래 여동생이 먼저 입양 가는 바람에 수십 년간 소식을 알지 못한 채 헤어져 살았다. 입양 기회를 놓친 헤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버스에서 만난 미군을 만나 결혼한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1948년생인 남편은 한국계 독일 혼혈인으로 미국으로 입양되어 군인으로 복무하던 사람이었다.

저는 다섯 살 때까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미국에 갔는데, 어머니는 미국에 가기 싫어하셨어요. 그녀는 그와 결혼해서 모든 서류와 비자까지 다 가지고 계셨죠. 비행기표까지 가지고 계셨죠. 그녀는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 제가 미국에 온 건 1978년 열다섯 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초청해서가 아니라, 열다섯 살에 결혼해서 여기 왔어요. <콜린>

어머니는, 아이 게스(I guess), 기지촌에 계셨겠지요. 기지촌으로, 기지촌으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의정부에서도 살았고, 용주골에서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학교에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직에는 필벽재단⁶⁴⁾ 알죠? 필벽재단, 거기를 들어갔어요. (...) 보니까는 전부다 저같은 사람인데, [크게 웃으며] 아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필벽재단에서 3년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인천에 다녔어요. ○○여고 다니고 졸업하고, 인자 집에 가서 있는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 버스 안에서 우리 남편을 만난 거야. 군인이었으니까 서울에 왔다가 파주 쪽으로 가는 길에. 그제 인연이 됐어요. <헤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이나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구술

64) 1964년 필 벽은 필벽재단을 설립해 미군 주둔지의 혼혈아동을 후원했다. 「한국혼혈아 원조기관 추진」, 『동아일보』, 1964. 10. 14.

자들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다. 이들은 유아기에 고아로 발견되었거나, 친모 또는 조부모에 의해 보육원 맡겨졌다. 캐서린처럼 친모(또는 이모)에 의해 입양된 사례도 있지만, 정확한 출생 내력을 알 수 없는 그녀에게 친모는 그저 헤어진 엄마일 뿐이다.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뒤 미국대사관에서 미국인과 결혼하고 이주한 구술자들 역시, 그들에게 이주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등과의 이별로 체험되었다. 그것은 캐서린의 구술처럼, “언어와 익숙한 문화,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으며 가까운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경험이었다. 이별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로이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는 이중적 감정을 느끼며 살았다.

(면담자: 엄마를 원망한 적이 있나요?) 네 그랬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엄마가 날 버렸을까. 잊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연주자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애너하임 경기장에서 트럼펫을 켜고 연주하고 있었어요. 무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니를 사랑하라.’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저는 엄마와 정말 가까웠어요. 엄마와 할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좋았어요. <로이>

이처럼 가족의 이산으로 체험된 이주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 불안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단지 일회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없다. 구술자의 생애에서 반복 재생되는 친밀한 관계로부터 한순간에 분리된 고통은 그들이 ‘가족 하기’를 수행하는 정동적(affective) 지반이라고 할 수 있다.

2. 친모에 대한 기억과 여성의 성·재생산권: “엄마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그리 오래 데리고 계실 만큼요”

구술자들의 생애사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공통점은 에이미를 제외하면 모두 얼마간은 친엄마가 양육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부 신문 보도처럼, 혼혈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하거나 살 수 없는 환경에 방치한 사건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⁶⁵⁾ 하지만 최소한 젖을 떼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직접 키웠던 여

65) 「혼혈영아 미부대에 시체」, 『동아일보』, 1953. 7. 18; 「혼혈아 유기」, 『동아일보』,

성들이 적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유기된 제니퍼는 서너 살까지 엄마가 키우다가 할머니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다. 캐서린의 첫돌 사진에는 잔칫상 앞에서 곱게 한복을 입은 채 딸을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있다. 베틀는 (최면술사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가 외출할 때면 문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걸 기억해낼 만큼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짧지 않다. 로이는 자신을 보육원에 데리고 간 친엄마를 한때 원망하기도 했지만, “저를 그리 오래 데리고 계실 만큼 좋은 분”이라고 회상했다.

(면담자: 왜 어머니가 당신을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엄마가 어떻게 날 키울 수 있었을까요. 엄마는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셨을 거예요. 엄마는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그리 오래 데리고 계실 만큼 좋은 분이셨죠. 아주 강한 분이셨죠. 할머니도 저를 지키기 위해 매우 강했고, 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저를 보내라고 제안한 분인 것 같아요. 엄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이>

헤나와 콜린은 결혼해서 이주할 때까지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여러 기지촌을 옮겨 다니며 일했던 헤나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열성적이어서, 항상 “공부 잘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했고 자모회에도 참석했다. 학교에서 소풍 갈 때면 “벤또(도시락) 좋게 싸서 선생님 것까지 갖다” 드렸다. 콜린은 어머니가 미군과 결혼해 아버지가 미국으로 귀환하기 전까지 5년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 많았다. 어머니가 친정에 갈 때면 고기나 햄버거와 같은 미군 부대 음식을 한가득 가지고 가서 늘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을 했다. 또 콜린이 동네 아이들에게 맞거나 놀림을 받으면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해결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콜린은 기죽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고 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놀림을 당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키가 아주 작고 쪼꼬만한 분이시지만, 아주 그냥 작은 고추가 맵다고, 아주 스파

이시(spacy), 매콤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신 어머니예요.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얻어맞고 집에 들어온다든가, 울고 있다면 누가 나를 울렸냐고 물어봐요. (...)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나를 데리고 가서, 그 집 아버지나 엄마한테 나오라고, 당장에 나오라고. 감히 어떻게, 내 딸은 미국 시민권자(시민권)를 가진 일등 국민인데 손을 대느냐. 내가 당장 순경을 부르면 너희 집 너희 엄마 아버지가 애 잘못 키운 거로 감옥소 가는 거 모르냐. 당장 사과해! 그럴 때 그 어머니들이 “아이고 ○○ 어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자기 아들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막 때려요, 우리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놀림을 받았어도, 아, 애네들이 놀림을 해도 나는 너희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라는 긍지심이 있었어요, 항상. <콜린>

이상의 사실은 세간의 통념과는 다른 일면을 보여준다. 흔히 혼혈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자마자 손쉽게 유기하거나 국제입양을 당연시했을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여성들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 보내기를 주저했고, 고생스럽더라도 아이를 키우려는 의지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이를 입양 보낸 뒤에도 한동안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사례가 수없이 많다.⁶⁶⁾

그렇다면 혼혈아를 낳은 여성에게 양육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혼혈아동의 양육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국인 어머니와 아동이 처한 법적 상황이다. 콜린의 사례처럼, 한국인 어머니가 미국인 아버지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에 있을 때 입양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달리, 입양 구술자들은 모두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낳은 가장 큰 걸림들은 미국의 까다로운 결혼허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베티의 구술은 미군의 엄격한 제도가 비규범적 가족을 양산하고 국제입양을 낳은 주요 원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주둔지 현지 여성과 결혼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전쟁신부법을 제정했지만, 당시까지 차별적 이민법이 적용되던 아시안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시

66) 미군과 동거하며 낳은 아이를 그의 송환과 함께 떠나보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사연에 대해서는 김정자의 증언을 참고. 김정자 증언, 김현선 엮음,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117-120쪽.

아에 주둔한 미군의 결혼 허가 신청이 계속 이어지자, 마침내 1947년 7월 개정법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짧은 기간만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어서 그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1950년 8월 외국인 배우자 자녀법과 1952년 이민국적법의 제정은 국제결혼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⁶⁷⁾ 하지만 실제로 결혼 신청 커플들에게 미군 당국은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⁶⁸⁾ 적지 않은 부부가 군의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까다로운 이유로 서류가 반송되는 일이 많았다. 이에 결혼을 허가받지 못한 여성들은 미군 ‘남편’이 본국으로 송환되면 아동 양육에서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껴 ‘아이 장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회의 선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는 비규범적 가족 양산과 혼혈아동의 입양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둘째, 한국인 어머니의 경제력과 돌봄 환경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헤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살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큰삼촌 등을 부양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했으며, 작은삼촌의 대학 교육까지 책임질 정도로 생활력이 있었다. 일터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살림집을 마련했고 가사 전담하는 “가정부”를 따로 두었다. 헤나와 동생은 주로 외삼촌과 이모가 돌보았다. 헤나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기 전에 한국인 남성과 이혼했는데, 자신의 친정과 시가가 있는 고향에 갈 때면 항상 딸 헤나를 데리고 갔다. 헤나는 “그 시어머니가 뭘 싸 가지고 와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라며, 어머니의 고향에 가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머니의 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보러 왔었다고 했다. 이처럼, 헤나는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낳았고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경제적인 뒷받침과 여러 가족 및 친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조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67) 김은경, 앞의 논문, 2023, 268-269쪽.

68) 유리 돌란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의 주둔 환경을 비교하며 후자가 주둔 군인들이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인 데 반해, 한국은 다른 전쟁지역처럼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남성 병사가 단기간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했다. 이것으로 인해,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 여성을 매춘과 연계해 인식했으며 한국 여성과의 결혼허가신청도 더 엄격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결국 결혼허가를 받지 못한 여성과 혼혈아동이 안정적이지 못한 환경에 방치되는 일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Y. Doolan, op. cit., 2021, pp. 358-36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혈아동의 유거나 국제입양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차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도, ‘피도 눈물도 없는’ 어머니의 윤리 문제도 아니다. 기지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혼혈아의 입양을 분석한 연구들에서조차 기지촌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제하고 어머니들이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지촌=돌봄이 불가능한 장소’라거나, ‘미군의 한국인 여성 파트너=아이를 낳거나 돌볼 자격이 없는 여성’이라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미군 기지 주변에 사는 여성이 모두 성을 팔았던 건 아니며, 성판매 여성이라도 그들의 돌봄을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흔히 성판매 여성은 가족생활과 상관없는 존재로 상상되지만, 실제 그들은 성매매 공간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하고,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동하고, 가족과 함께 일한다.⁶⁹⁾ 기지촌에서는 대개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사실 그 돌봄은 혼자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이모’를 자처하며 서로 아이를 돌보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많았다.⁷⁰⁾ 이런 기지촌 여성 공동체의 상호돌봄은 ‘가족 하기’에 다름 아니었으며,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규범적인 가족상을 넘은 실천이었다. 김연자는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가까지 했다.

나는 박미애와 부대끼면서 여전히 똑같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애가 임신을 했다. 우리는 다짐했다. ‘우리 이 아기를 떠지 말고 잘 키우자.’ 우리 둘이 사는 중에 생긴 아기니까 우리 아기로 키우자고,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 전철을 밟지 말고 이번엔 잘 키워보자고 다짐했다. (중략) 그 아이가 영아, 우리 아기였다. 김영이라고 호적도 내 앞으로 올렸다. (중략) 영아는 나 보고는 ‘사무실 엄마’, 자기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불렀다.⁷¹⁾

69) 김주희,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125쪽.

70) 기지촌에서 자란 풀 하우(1967년생)는 자신에게 정서적 위안을 줬던 어머니의 친구를 “천사”로 기억하고 있다. 캐서린 김 외 저,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틈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집, 2020, 38-51쪽.

71)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133-134쪽.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혼혈아동의 대규모 국제 입양은 결국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과 여성의 성·재생산권이 보장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⁷²⁾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은 여성이 친부를 찾아 양육비를 청구하는 일, 여성의 성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국가 수당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 조건을 마련하는 일, ‘가족 하기’를 수행하는 비규범적 가족이 생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 등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V. 수행으로서 ‘가족 하기’와 ‘허물기’

1. 초국적 가족의 형성과 비/동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제 원래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에 주둔했던 미군이 현지에서 만난 배우자와 아이를 데리고 귀환하겠다는 요청이 폭증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존의 인종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이민정책의 기초를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로 상징되는 다문화주의를 전후 재통합 전략으로 택하게 되었다. 귀환 군인이 만든 초국적 가족은 냉전기 미국의 우월성과 인종적 관용을 보여주는 통합의 상징으로 작용했다.⁷³⁾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이후 국제입양으로 초국적 가족은 더 증가했고, 그 이데올로기적 의미도 확대 재생산되었다.

초국적 가족은 혈연, 인종, 국가, 문화의 경계를 횡단하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혈연이나 인종의 단일성을 기초로 한 가족과 달리, 초국적 가족에게는 ‘가족 실천’을 통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에이미의 구술은 ‘가족 하기’를 통해서 형성된 문화적 가족의 의미를 매우 잘 보여준다. 흑인

72) 혼혈아동 입양 문제에서 모성권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이를 모성의 권리로 이해하는 방식은 다소 관련 논의를 협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129-146; Yuri Doolan, op. cit., 2021.

73) 김은경,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나도 한국의 딸’과 ‘모범적 소수자’를 넘어 초국적 여성연대로』, 『사람』 84, 2023, 274-277쪽.

계 혼혈인 에이미는 아이가 없는 흑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양부가 약사여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자랐지만, 양부모가 겪은 인종차별과 모욕적 상황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면서 그에 대한 반감과 함께 흑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언덕 위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표지판을 붙여놨기 때문이에요. ‘유색인종 금지’, 흑인은 안 된다거나 그런 거요. 그 게 최악이었어요, 제가 본 편견 중 최악이었어요. <에이미>

이처럼 에이미는 양부모와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부모는 에이미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약사가 되기를 바랐으며, 교육과 양육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에이미는 양모와 사이가 좋아서 첫딸을 낳고 누구보다 그녀를 그리워했다. 면담자는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행위가 자연스레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떠올릴 것으로 가정하고 출산 직후 친모에 대해 질문했는데, 구술자인 에이미는 의외의 답을 했다. 친모를 잠깐 떠올리기는 했지만, 양모를 더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손주를 간절히 바랐던 양모가 손녀가 태어나기 6주 전에 사망한 게 몹시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이미는 흥미로운 해석으로 서로 만난 적 없는 두 사람 사이를 연결했다. 자신이 낳은 큰딸이 양어머니를 쏙 빼닮았다는 것이다.

(면담자: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친모 생각이 났나요?) 네 그랬어요. 하지만 양어머니가 손주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녀가 더 생각났어요. 양모는 “난 네가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아이만 낳아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임신했을 때 그녀는 정말 흥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12월에 돌아가셨고 제 딸은 2월에 태어났어요. 6주 차이였죠. 그래서 딸을 물리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제 큰딸은 양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의 영혼이 서로 스친 것 같아요. 딸의 행동은 엄마와 정말 비슷해요. 저에게는 딸과 같은 그런 DNA가 없거든요. <에이미>

가족이 생물학적 혈연 공동체로서 변화하지 않는 영속적인 범주라는 인식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서로 외형이나 기질이 닮았다는 점은 그런 생물학적 공동체 관념을 자연화하고 강화한다. 그런데 입양인

에이미는 자신이 낳은 첫 딸이 자신보다 양어머니를 쪽 빼닮았다고 했다. 유전적으로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면조차 하지 않은 두 사람을 “영혼이 서로 스쳐 지나갔다”며 한 가족으로 ‘연결’했다. 이것은 유전적 연결의 상징인 닮음을 ‘영혼의 스침’과 같은 문화적 연결로 대체하는 가족 실천이다. 이런 ‘가족 하기’는 폐쇄적이고 단단한 가족이 아닌, 연결과 관계 맺기를 통해 무한히 열리는 개방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 허물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국적 가족의 현실을 이상화할 수만은 없다. 입양 부모가 입양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가정에서는 중간에 입양을 포기하거나 다른 위탁가정에 보내기도 했다. 베티는 자라면서 양부모와 갈등이 커져 위탁가정에 맡겨졌다.

엄마는 입양으로 딸을 원했지만, 아빠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친아들 외에] 또 아이를 키우길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는 항상 갈등의 불씨였죠. 엄마가 실수로 아빠가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했고, 그래서 저는 ‘아, 당신들이 나를 원하지 않지. 오케이, 나도 당신들을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죠. <베티>

일방적인 동화 요구는 초국적 가족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된다. 관용과 포용을 표방한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실은 동화주의와 다르지 않았던 것처럼, 입양이나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초국적 가족은 이주 구성원이 미국식 가정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입양아동은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받는 일이 많았다. 로이의 구술은 그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잘 보여준다.

흑인계 혼혈인 로이는 백인계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그들로부터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학대를 경험했다. 특히 양부모는 로이가 미국식 식사 예절이나 대화 방법을 익히지 못한 것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다. 양모는 일상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양부는 그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받았지만, 관계는 끝내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에서마저 친구들은 그가 영어를 못하는 데다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놀리고 때리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로이는 미국인과 자신을 분리하며 “제겐 미국인이 그다지 편하지 않아요”라거나, “저는 미국인을 잘 믿지 못해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가 입양하고 싶었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집안의 검은 양과 같았어요. [양]엄마는 매일 저를 때렸어요. [그녀 스스로] 화가 나거나, 또는 [제가 미국식] 매너가 없어서 그랬어요.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학교생활도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흑인 남자애들이 저를 때리고 놀렸어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싸움꾼이 아니었어요. 진 싸운 적도 없고 그냥 공격만 당할 뿐이었죠. 그래서 7년 동안 울었어요. 매일 울면서 집에 가고 싶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로이>

그녀[양모]는 저를 정말 나쁘게 대했어요.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매일 때렸어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키우는 거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텍사스는 흑인 아이들이 많은데, 텍사스 흑인들은 정말 거칠고 강해요. 그들은 저를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면서 짐을 날리려 했죠. 저는 항상 맞고 다녔어요. 트럼펫을 연주하기 전까지는요. 7년 동안 너무 외로워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하루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양부와 양모가 식탁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아버지도 저와 말을 안 하고요. 엄마도 저를 도와주거나 말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우두커니 있었을 뿐이죠. 그들은 (제가) 여기에 있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았어요. <로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동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로이는 양부모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지 못했다. 그는 끝내 양부의 성을 버리고 원래 자신의 성이었던 친모의 성으로 개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제 원래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제 진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건 제 고향이잖아요. (면답자: 원래 성인 ‘박’이 당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내 엄마의 성이 박 씨였기 때문이에요. 할머니와도 정말 친했고요.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요. 비록 제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하거나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아 집으로 가져왔을 때도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로이>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개명을 입양아로서 자신의 ‘뿌리’를 되찾아 생물학적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다. 어머니의 성인

‘박’은 자신을 따뜻하게 보살폈던 할머니나, 고향 동네의 개구리 또는 물고기와 관련된 기억과 뒤얽혀 있다. 이로 보아, 그의 개명은 한편으로 자신을 학대했던 양부모에 대한 도전이자 그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그것은 정서적 친밀함으로 남아 있는 기억의 고리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이는 초국적 입양가족에 동화하지 못한/않은 주체의 ‘가족 하기’이자 ‘가족 허물기’라고 할 수 있다.

2. ‘뿌리’ 찾기과 ‘리즘’의 대면: “백인 가족에 흑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저명한’ 가족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짐작할 수 있죠”

2000년대 이후 유전자 정보 검사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자, 미국 이주 혼혈인과 입양인 사이에서는 DNA 검사를 통한 가족 찾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앤세스트리닷컴(Ancestry.com)’이나 ‘23앤드미(23andMe)’와 같이 유전자 정보 기반 업체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325캄라(325Kamra)’⁷⁴⁾를 비롯한 작은 입양 혼혈인 단체도 회원의 검사를 돕고 있다. 사업가로 성공한 혼혈 입양인이 무료 검사 도구를 제공하기도 했고,⁷⁵⁾ 점차 검사 비용이 저렴해져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유전자 검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벤티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아가신 친부와 이부 여동생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보다 먼저 입양 간 이부 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벤티를 낳기 전에 다른 미군을 만나 낳은 딸을 입양 보냈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끔 소식을 주고받는 사람은 비혼혈인 이부 여동생이다. 로이는 친모를 찾았지만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캐서린은 돌아가신 친부를 찾았는데, 그 역시 자신처럼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캐서린이 실제로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의 이복 남동

74) ‘325캄라’는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다. ‘캄라’는 ‘한국 입양인 혼혈인 협회’의 약자이며, ‘325’는 ‘325캄라’의 설립을 결의한 회의가 열렸던 버클리 근처 호텔의 방 번호를 의미한다. “[Interview] If only parents gave DNA samples when they put children up for adoption”, *HANKYOREH*, 2017. 4. 4.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789250.html (검색일: 2023. 11. 20.)

75) 혼혈 입양인 토마스 박 클레멘트(T. P. Clement)의 기부활동은 매우 유명하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BQhrYPgR-QU> (검색일: 2023. 6. 27.)

생의 입양 간 딸이었다.

아버지를 찾았을 때 정말 기뻐어요. 사실 저는 먼저 사촌을 찾았어요. ‘23andMe’를 통해 연락했는데 8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입양되었었다고요. 아버지는 입양되어 성이 달라 정말 찾기가 어려웠어요. 바늘구멍 찾기처럼요. 아버지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딸을 만났어요] 그 딸도 입양됐대요. 우리 사촌이고, 둘 다 입양됐던 거죠. <캐서린>

제니퍼는 DNA 검사를 통해 구순이 넘은 친모를 극적으로 찾았다. 어머니는 제니퍼를 입양 보낸 뒤 다른 백인 군인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다. 제니퍼는 어머니를 만난 기쁨과 함께 동생들이 6명이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러나 백인계 이복동생들 가운데 일부는 흑인계인 제니퍼를 달가워하지 않아 끝내 만남을 거부했다.

저와 딸,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로]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그녀 [엄마]를 닮았더군요. (...) [친어머니는] 1958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다른 미군과 결혼해서 메릴랜드로 이주하셨어요. 남편은 백인이었죠. 그래서 가장 큰 두려움은 육 남매[제니퍼의 이복동생들]가 저를 ‘나’로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가족들이 말했듯이, 삼키기에는 큰 약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제 엄마에게 갔어요. 엄마가 날 거부하지 않고 절 반겨주셨어요. 내 큰딸이라고 하셨어요. <제니퍼>

평생 [저는] 외동이었는데, 65세가 되어서야 형제자매가 생겼어요. 대박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제가 맘이에요. 네, 동생이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동생들도 저처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알잖아요. 백인 가족에 흑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저명한’ 가족(prominent family)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짐작할 수 있죠. 저는 그들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나머지 가족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저를 부끄러워하겠죠. <제니퍼>

유전자 검사는 양면성이 있다. 그것은 우선, 고아나 입양아가 혈연관계의 내력이나 가족을 찾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검사 결과 드러난 여러 복수(複數)의 조상은 개인의 생물학적 기원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때로는 개인이 굳게 믿고 있는 ‘상상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계통을 드러냄으로써 인종, 민족, 국가 정체성에 대한 세간의 상식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인종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비판자들은 인종이 유전자에 기인한다는 사고를 이런 새로운 기술이 더욱 고착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종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다는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⁷⁶⁾

이런 양면성은 구술자들의 가족 찾기에서도 드러난다. 구술자들에게 ‘뿌리 찾기’는 대부분 잃어버린 부모와 형제자매를 찾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그를 통해 생물학적인 내력과 가족의 계보를 완성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담겨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그것은 혈연적 연결성을 기대한 행위였다. 이런 점에서 유전자 검사는 가족이 친밀함을 공유하는 문화적인 실천을 통해서가 아니라 혈연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을 본질화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구술자들의 가족 찾기 실천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를 낳으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전자 검사 결과 구술자들은 단일한 가계도-‘가족 나무(family tree)’를 완성하지 못했다. 정작 그들이 찾은 사람은 이미 돌아가신 부모이거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복동생이 입양 보낸 딸이거나, 인종이 다른 이부/이복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식들이었다. 또는 혈연관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만큼 먼 친척이었다. 즉 ‘뿌리 찾기’의 결과 그들이 확인한 것은 단일한 가계도를 그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사실, 복원해야 할 원본의 가족/가계도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뿌리 찾기’는 ‘원본이 없는 패러디적 수행’⁷⁷⁾에 가까운 ‘가족 하기’라고 할 수 있다. 그 수행의 결과 그들이 대면한 것은 ‘가족 나무’의 단일한 ‘뿌리’가 아니라 무수한 결연관계로서 다른 이질적인 지점들과

76) S. Abel, *Permanent Markers : Race, Ancestry, and the Body after the Genome*,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p. 115.

77) 주디스 버틀러,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08, 144-145쪽.

“연결접속”하는, “반(反) 계보”에 가까운 ‘땅속줄기-리즘(rhizome)’이었다.⁷⁸⁾ 그런 점에서 이주 혼혈인의 ‘뿌리 찾기’라는 ‘가족 하기’는 애초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패러디적 수행을 통해 사실상 규범적인 가족상을 바꾸는 ‘가족 허물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구술자들의 ‘가족 하기’가 자신의 생물학적 가족을 찾는 데에서 더 나아가 다른 결연관계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국계 혼혈인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친족’을 만들어 나갔다. 캐서린을 제외한 구술자 6명은 모두 재미 한국계 혼혈인 단체인 ‘하파 네이션 원(HAPA Nation One: 이하 ‘하파’)⁷⁹⁾의 회원들이다. 하파는 절반이라는 뜻의 ‘해프(half)’를 일컫는 하와이 말이다. 이들은 혼혈인을 의미하는 ‘해프(hapa, half-Korean)’를 다시 전유하며 새로운 의미로 확장했다. 제니퍼는 ‘하파’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긴다고 했다. 모두 입양인이 아니더라도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가 “답은 게 너무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파’를 대가족으로 인식했다.⁸⁰⁾ 이것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통해 절합(articulation) 하는 새로운 친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에이미는 결핍을 상징하는 ‘절반(half)’이라는 말을 전복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했다. 그녀는 ‘하파’에 참여함으로써 (절반이 아닌) “두 배의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에이미가 표현한 “두 배의 기쁨”은 단지

78)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 11-55쪽.

79) ‘하파 네이션 원(HAPA Nation One)’은 2020년에 설립된 재미 한인 혼혈인 단체이다. 한인 혼혈인의 단합과 친목, 모국 방문, 한국 혼혈아동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하파(hapa)는 하와이 혼혈인을 일컫는 말로 한때는 혐오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하파 네이션 원’처럼 이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유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하파의 유래는 다음 기사를 참고. M. Kinsey, “Celebrating Hapa Day - Reaching a Common Goal,” *MIXED ASIAN MEDIA*, June 2, 2023.

80) 에이미의 해석은 국제 입양인 단체 회원들이 상호 간에 느끼는 연대 의식도 유사하다. 스웨덴한국입양인협회(Adopterade Koreaners Förening, AKF)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회장 다니엘 김은 입양인 청중 앞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당신은 나의 세 번째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나는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은 그가 될 수 있고, 그는 그녀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엘레나 김은 입양인들의 이런 모습이 초국가적이며 확대된 친족 관계 모델을 제공한다고 보고 이를 ‘입양인 친족’으로 개념화했다. E. J. Kim, *op. cit.*, p. 95.

큰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항상 ‘절반’으로 호명하며 그들을 결핍과 손상의 존재로 만들었던 사회 담론과 시선에 대한 도전을 뜻한다.

또한 그녀는 “에이미”, “약사의 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절반은 이쪽[미국인/흑인]”, “절반은 저쪽[한국인/황인]”, “흑인 커뮤니티의 일원” 등 자신을 규정해 온 정체성을 넘어 ‘하과’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은 아시아계나 흑인계가 아닌 “나는 그저 ‘하과’일 뿐이에요”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존재와 관계 맺기가 자신의 단단한 정체성을 허물(undoing)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쪽도 저쪽도 아닌’, ‘반쪽이 아닌 200%’의 존재로서 스스로 자리매김하며 또 다른 친족 공동체를 만들었다. 비혈연적 공동체인 ‘하과’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것은 ‘하과’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가족 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실천과 인식은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인종의 틀을 넘는 열린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가족 허물기’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하과’를 만난 걸 아주 축복으로 생각해요. 우리 모두 한국계이고 우린 서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입양된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가족, 대가족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들과 닮은 게 너무 좋아요. 더 이상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전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함께 어울려 소주도 마시고. (모두 웃음). <제니퍼>

[‘하과’ 모임에 참여하고 나서] 흑인 아버지를 둔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기 때문에 흥미로웠어요. 같은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저는 그냥 에이미가 아니에요. 약사의 딸이고, 저는 에이미이고,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아내고, 아이들의 엄마이고, 반은 이쪽[미국인]이고 반은 저쪽[한국인]이지만. 항상 흑인 커뮤니티의 일원이었는데, 다른 커뮤니티[하과]에 들어가게 된 것은 두 배의 기쁨이에요. (면담자: 당신에게 ‘하과’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에이미>

VI. 맺음말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미 혼혈인 구술자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고향인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냉전기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나라 밖으로 ‘내몰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결핍’과 ‘손상’은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만드는 데로 나아갔다. 재미 혼혈인 구술자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미국 이주 혼혈인의 역사를 냉전기 아동의 이주와 가족 이산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 정치 사회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그들의 이주는 전쟁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한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냉전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이익 실현을 위한 냉전 전략으로써 인도주의는 그것의 중요한 배경이었다. ‘민간 주도의 인도주의적 구호’라는 이미지는 비정치적인 외피를 띠며 혼혈아동 입양의 정치적 의도를 잠재우는 역할을 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국제입양을 통해 가부장적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정책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민간단체를 통한 입양이라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부각하며 냉전 정치에 편승했다.

둘째, 혼혈인의 경험 세계에서 미국 이주가 가족 이산으로 체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또 구술자마다 이주 동기가 다른 이유를 분석했다. 어린 나이에 입양된 구술자와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결혼 후 이주한 구술자의 이주 경험은 한국인 어머니와 아동이 처한 법적 처지, 경제 상황, 돌봄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혼혈아동의 유거나 입양이 단지 한국의 인종차별이나 어머니의 비윤리적 태도, 또는 기지촌의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비규범적 가족의 생존권과 여성의 성·재생산권이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재미 혼혈인의 경험을 가족사적 맥락에서 탐색하고, 초국적 가족의 명암을 분석했다. 또 구술자들의 ‘뿌리 찾기’를 ‘가족 하기’와 ‘가족 허물기’라는 수행적 차원에서 고찰했다. 가족 찾기 수단으로 성행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순이 넘은 노모를 만난 구술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소식을 접했다. 구술자들은 아버지가 제각기 다른 이부 형제자매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복동생의 딸, 인종이 다른 이부 동생을 등을 찾았다. 이에, 때로 반갑지만 때로 당혹스러운 상황과 대면해야 했다. 사실, 복원해야 할 원본의 가계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들의 ‘뿌리 찾기’는 ‘원본이 없는 패러디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런 수행을 통해 구술자들이 찾은 것은 ‘가족 나무’의 단일한 ‘뿌리’가 아니라, 다른 이질적인 지점들과 “연결접속”하는 ‘땅속줄기-리좀(rhizome)’이었다. ‘계보의 복원 불가능’에서 비롯한 결핍감은 ‘반(反) 계보’의 결연관계인 재미 혼혈인 단체 ‘하파’로 이어졌다. 구술자들은 혼혈인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친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 왔다. 요컨대, 구술자들의 ‘가족 하기’는 친척(relative)과 관계(relation)를 만드는 행위였으며,⁸¹⁾ 이것은 결국 기존의 규범적 가족상에 도전하는 ‘가족 허물기’였다.

81) 친척(relative)과 관계(relation)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도나 해러웨이 저,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178쪽.

참고문헌

1.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국가기록원 소장문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

김연자, 『아메리카타운 왕언니 죽기 오분 전까지 악을 쓰다』, 삼인, 2005.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50년사: 1955-2005』, 홀트아동복지회, 2006.

RG 338, Eighth U.S. Army, 1944-56, Adjutant General Section, General Correspondence 1951, Box 491 (NARA)

2. 연구서

권희정, 『미혼모의 탄생: 추방된 어머니의 역사』, 안토니아스, 2019.

김은경, 『학생문화사: 해방에서 4월혁명까지』, 서해문집, 2018.

김정자 증언, 김현선 엮음,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도나 해러웨이 저, 최유미, 역, 『트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2021.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 사회』, 후마니타스, 2008.

비런더 S. 칼라·라민더 카우르·존 허트너 저, 정영주 역,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에코리브르, 2013,

아리사 H. 오 저,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뿌리의 집, 2019.

염운옥, 『낙인찍힌 몸: 흑인부터 난민까지, 인종화된 몸의 역사』, 돌베개, 2019.

이삼돌(토비아스 휘비네트) 저, 뿌리의 집 역, 『해외 입양과 한국 민족주의』, 소나무, 2008.

전흥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아이를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관한 보고서』, 오월의 봄, 2019.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08,

- _____, 『젠더 허물기』, 문학과 지성사, 2015.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2001.
- 캐서린 김 외 저, 강미경 역, 『인종주의의 덫을 넘어서: 혼혈 한국인, 혼혈 입양인 이야기』, 뿌리의집, 2020.

Abel, Sarah, *Permanent Markers: Race, Ancestry, and the Body after the Genome*, Chapel Hill, North Carolina,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2021.

Kim, Eleana J.,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London, Duke Univ. Press, 2010.

Klein, Christina,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2003.

Morgan, David H.J.,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1996.

Pate, Soojin,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2014.

ROBINOU, *Queer Communal Kinship Now!*, Punctum Books, 2023.

Winslow, Rachel R., *The Best Possible Immigrants: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American Family*,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2017.

Woo, Susie, *Framed by War: Korean Children and Women at the Crossroads of US Empire*,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2019.

3. 논문

권희정, 「입양실천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 들기」, 『페미니즘연구』, 15-1, 2015.

김아람,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2009.

_____, 「배울 권리와 의무교육의 교차, 1950~60년대 전반 ‘혼혈’ 아동 교육」,

- 『역사비평』 133, 2020.
- 김영인·정옥경,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혼혈아의 실태연구」, 『사회사업』 4, 1969.
- 김은경,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45-2, 2006.
- _____, 「재미 국제결혼여성의 다방향적 인정투쟁: ‘나도 한국의 딸’과 ‘모 범적 소수자’를 넘어 초국적 여성연대로」, 『사림』 84, 2023.
- 김주희, 「성매매 피해 여성은, 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성의 정치, 성의 권리』, 자음과 모음, 2012.
- 김정강, 「보이지 않는 혼혈인: <내가 낳은 검둥이>로 본 대한민국 ‘검은 피부’의 정치학」,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 함께, 2014.
- 김혜경, 「가족구조에서 가족실행으로: ‘가족실천’과 ‘가족시연’ 개념을 통한 가족연구의 대안 모색」, 『한국사회학』 53-3, 2019.
- 박경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8, 1999.
- 박정미, 「혈통에서 문화로? 가족, 국적, 그리고 성원권의 젠더 정치」, 『한국사회학』 54-4, 2020.
- 변화영, 「혼혈인의 디아스포라적 기억의 재구성: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5, 2013.
- 설동훈, 「혼혈인의 사회학: 한국인의 위계적 민족성」, 『인문연구』 52, 2007.
- 신필식,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0.
- 윤은순, 「1950·60년대 아동복지사업의 내용과 성격: CCF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사연구』 107, 2021.
- 이소라, 「1950년대 미군대한원조(Armed Force Assistance to Korea, AFAK)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행」,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22.
- 이철우, 「국적과 종족성에 의한 집단적 자아와 타자의 구별」, 『사회이론』 23, 2003.
- 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어영문학』 21, 25-4, 2012.
- 임부웅, 「입양시기를 놓친 혼혈아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1, 1966.

임선애, 「새로운 주체의 탄생, 혼혈인에서 노마드적 주체로: <리투아니아 여인>의 경우」, 『한국사상과 문화』 79, 2015.

장진요, 「한국인과 백인 및 흑인과의 혼혈아에 대한 체질인류학적 연구」, 『서울의대잡지』 2-1/2-2, 1961.

한봉석, 「인도주의 구호의 ‘냉전적 기원’: 1950년대 주한케어(C.A.R.E.)의 우유급식사업과 ‘푸드크루세이드’(Food Crusade)」, 『사이(SAI)』 28, 2020.

_____, 「구호문자에 담긴 냉전: 주한 케어(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통일과 평화』 12-1, 2020.

Morgan, David H.J., “Risk and Family Practices: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Elizabeth B. Silva, Carol Smart, eds., *The New Family?*, SAGE Publications, 1999.

Y. Doolan, “The Camptown Origins of International Adoption and the Hypersexualization of Korean Children”,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Vol.24, No.3, 2021.

_____, “The Cold War Construction of the Amerasian, 1950–1982”, *Diplomatic History*, Vol.46, No.4, 2022.

4. 기타

Korean War and Children’s Memorial (<http://koreanchildren.org/docs/navysbaby.htm>)

The Adoption History Project (<https://pages.uoregon.edu/adoption/index.html>)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조교수 / eyes1000@hansung.ac.kr)

주제어: 혼혈인, 입양, 냉전 인도주의, 가족 실천, 가족 하기, 가족 허물기

논문투고: 2023. 12. 15. 심사완료: 2024. 1. 15. 게재확정: 2024. 1. 31.

<Abstract>

Doing Family, Undoing Family

— Mixed Race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s a Cold War Event,
Transnational Family Formation, and Performative “family practice” —

Kim, Eunkyung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through the life histories of the interviewees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laces the history of mixed-race 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context of Cold War child migration and family separation, and critically explores its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In other words, their departure from their native Korea was not a natural outcome of the war, but a Cold War event. Second, I examined how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was experienced as a family separation in their world of experience, and analyzed the reasons for the different motivations for migration. This shows that the abandonment or adoption of mixed-race children was not just a matter of Korean racism, unethical maternal attitudes, or the fact that the camp town was an unsuitable space for raising children, but rather a matter of non-normative family survival rights. Third, this study explores the lights and shadows of the postwar transnational family. It also examines the interviewees' “search for roots” in terms of the performative dimension of “doing family,” noting that their family reunions are not just “imaginary originals” that restore the family but create a new world. “Doing family” for the interviewees is the act of creating relationships such as HAPA community, which in turn is a “undoing family” that challenges the existing normative image of family.

Key Words: Mixed Korean, adoption, cold war humanitarianism,
family practices, doing family, undoing family